

종교와 노인의 여가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I. 서론: 가설은 이렇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의 기간은 동시에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과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과정은 동시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죽음을 향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행복하게 늙어가기’는 모든 인간의 공통의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웰다잉(well-dying)으로 귀결될 것이다.

웰빙(well-being)은 웰다잉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나 청소년의 경우 ‘행복하게 늙어가기’를 실감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불혹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어렵풋하게 자각하기 시작한다. 한 사회에서 이 사실을 실감의 차원에서 자각하고 있는 유일한 계층이 바로 노인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이야말로 실존의 차원에서 ‘늙음과 행복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주체이다.

그렇다면 노인이 ‘늙음’과 ‘행복’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육체적 건강’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늙음과 그로 인한 질병이 노인의 ‘육체적 건강’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집중한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자본 즉 돈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행복은 ‘돈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늙음과 돈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지갑’도 노인의 행복을 전적으로 담보해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풍부한 ‘사회적 자본’인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은퇴는 물론 거동조차 불편하여 동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노인들이 풍부한 사회적 자원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노인들이 자신의 육체적 조건이나 물질적 조건 등과 같은 외적 조건에서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늙음’과 ‘행복’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식관심의 초점을 또 다른 조건 즉 주체(노인)의 내적 조건으로 확장(혹은 심화)해야 하지 않을까?

노인의 행복에 관한 이해 지평의 확장(혹은 심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여가다. 여가야말로 노인의 전유물이자 특

권이다. 그 어느 계층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는, 넘쳐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채울 것인가가 오히려 골칫거리이다. 어쩌면 이 문제를 여하히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노인의 행복이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노인들은 여가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고독감, 우울증, 치매 등 정신질환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노인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조차도 주로 노래나 춤 등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여가 즉 타자와 하나가 되는 우주적 자기를 실현함에 따른 충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는 여가와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 노인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가 주체의 내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노인 행복 문제의 요체는 ‘노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보내도록 할 것인가?’로 수렴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종교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행위자 자신의 내적 의미 즉 삶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내적 충만감), 절대자이든 절대적 경지이든 그것과의 만남을 통해 타자(혹은 대상세계)와의 합일에 이르는 체험(자기완성의 감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충만감과 자기완성의 감정이야말로 여가의 진정한 의미이자 여가활동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시간 동안 종교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계와 합일되는 충만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즉 종교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여가생활을 할 때, 비로소 늙음과 행복은 결합될 것이다. 우리의 가설이다.

II. 개념 정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여가, 종교, 그리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웰빙 등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규정은 불가피하다.

1. 여가 생활: 우주적 자기실현의 활동

통상 여가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짜투리 시간이란 시간적 정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은퇴한 노인의 여가를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정의할 수는 없다. 또한 여가를 스포츠나 게임과 같은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여가는 통상 레크리에이션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충전이나 재창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업화되어 있어 소외된 여가로 귀결되기 십상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내적 의미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이든 레크리에이션이든 육체적 활동과 관련하여 노인의 여가를 정의하는 것은 노인의 육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주체 즉 노인의 내적 조건을 논하려는 본고의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여가를 존재의 상태(혹은 불교적 의미의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뉴링거(John Neulinger)는 여가를 ‘존재 또는 마음의 상태(a state of being or mind)’로 보았는데, 그 요체는 ‘자유의 자각(perception of freedom)’이다.¹⁾ 저명한 여가학자 갓베이(Geoffrey

1) John Neulinger,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Godbey)도 존재로서의 여가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가’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직관적으로 가치 있고, 신념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고의 사랑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와 물리적 환경이라는 외적 강제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²⁾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여가는 주체가 자신과 대상 사이의 장벽을 넘어 대상 세계에 대한 지극한 사랑(혹은 자비)의 마음으로 가치체계 및 신념체계를 추구하는 존재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짜투리 시간이나 궁극적으로는 자기소외로 귀결되는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상업적 레크리에이션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차라리 동양철학적 관점의 ‘우주적 자기실현의 상태(혹은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니르바나 상태)’ 및 자타합일의 자기완성의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³⁾

노인의 여가를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그 수단 혹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피성이야말로 우리가 노인의 여가를 종교와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또한 수반된다. 여가만큼이나 종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혹은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Leisure (Springfield, Ill.: Charles Thomas Publishers, 1974).

2) 제프리 갓베이(Geoffrey Godbey), 『여가학으로의 초대』, 권두승 외 옮김 (서울: 학지사, 2005).

3) 최원기는 이러한 의미의 여가를 ‘미학적 여가’라 정의하고 ‘스트레스성 여가’와 대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필자와 동일하다(「스트레스성 여가와 미학적 여가」,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일상속의 한국문화』, 서울: 나남, 1998).

2. 종교: 'iron cage' 를 벗어날 수 있는 열정

통상 종교에 대한 정의는 크게 실체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로 나누어진다. 실체적 정의는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종교를 정의하는 것인데, 절대자(신, 도, 법 등), 교리, 신도 등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기능적 정의에 따르면 종교란 구성원들의 느낌, 열망, 생각 등 삶의 내적 의미(혹은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해주는 그 무엇이다.⁴⁾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여가를 우주적 자기실현의 상태라고 할 때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종교의 기능적 정의를 채택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일찍이 베버(Max Weber)는 현대인의 비극적 운명을 '쇠우리'(iron cage)에 비유한 바 있다. 현대인은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서 합리성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쇠우리를 벗어나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은 욕구를 더욱더 간절하게 바란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의 여가(우주적 자기실현)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욕구를 더 강렬하게 추구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란 바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물론 내세의 구원을 위한 현세적 금욕을 강요하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예외로 할 경우, 불교를 포함한 거의 대

4) Robert N. Bellah, *Tokugawa Religion: The Values of Pre-Industrial Japan* (NY: Free Press, 1960).

부분의 종교는 합리성과 열정의 양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불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리가 지극히 합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면 종교적 실천이나 신앙은 자기완성의 열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종교 의례와 축제는 ‘과장법의 상상력’(hyperbolic imagination)에 의해 지배되기도 한다.⁵⁾ 요컨대 종교야말로 현대인에게 합리성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열정의 마중물로 기능한다.

최근 서구사회에서의 명상 열풍 현상은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의 합리성의 최우리를 넘어서려는 욕구를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명상과 같은 실천이 그러한 초월의 원동력이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사찰의 주말 수련회, 템플스테이, 월정사 단기출가 등이 대중들의 여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도, 사찰의 편의시설, 양질의 서비스 혹은 접근의 용이성 보다는 오히려 현대인 자신의 심각한 소외와 그 탈출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 불교의 신도들이 간화선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도, 사찰의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신도 자신의 내적 열정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혹은 불교적 종교 활동)를 그 참가자들에게 삶의 내적 의미와 열정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정의할 때, 여가수단으로서 불교는 불자를 포함한 한국인 일반에게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셈이다. 물론 노인층의 경우 불교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능(어쩌면 종교 혹은 불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

5) Stephen H. Webb, “Introduction—Refiguring Religion: Toward a Hyperbolic Imagination,” *Blessed Excess: Religion and the Hyperbolic Imagin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히 불자의 경우에는 불교야말로 자신의 죽음 및 내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이다.

3. 웰빙=삶의 질=행복은 돈지갑에서 나오지 않는다

최근 한국사회의 웰빙 열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 사람들은 웰빙을 경제적 부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식주 등 물질적인 충족상태로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이를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웰빙 개념은 삶의 내적 충만감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을 담보해 주지도 못한다. 비록 웰빙이 어느 수준까지는 물질적 충족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인의 여가와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정신적 웰빙 개념이야말로 노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웰빙 개념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1950년대 초부터 성공적인 노화과정의 지표로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연구해 왔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황금기(golden age)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적 충족 상태 그 이상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마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단계를 넘어서면 안전, 소속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생욕구체계의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상향이동하는데, 삶의 질이란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메들리(Morris L. Medley)도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

하고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가 형성되며,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보았다.⁶⁾ 그 결과 오늘날 ‘삶의 질’ 개념은 웰빙(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같은 용어와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⁷⁾ 결국, 일정한 물질적 충족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이란 주체의 주관적 평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오늘날 한국인의 웰빙도 정신적 웰빙의 차원에서 개념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삶의 질(혹은 웰빙)은 그들의 여가활동의 내용은 물론 그들의 세계관과 직결되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III. 이론적 논의

이상과 같은 개념 정의에 따르면, 각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형으로 구체화된다. 즉 노인의 진정한 여가는 종교를 통해 오히려 완성될 수 있으며, 그것은 정신적 웰빙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이론적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야기한다. 하나는 여가와 종교의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문제이며, 다른

6) Morris L. Medley,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1976).

7) Karl F. Schuessler & G. A. Fisher,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985), pp. 129-149.

하나는 종교와 웰빙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이론적 문제이다.

먼저 여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문제를 논의해 보자. 그러나 지금까지 여가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은 주로 노동(혹은 생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이 바로 문화산업론적 관점이다. 문화산업론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가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크게 발전 한 이론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산물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일 뿐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론에 따르면, 여가조차도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총체적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토대(생산)와 상부구조의 관계와 토대의 우선성을 전제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이론 틀 속에서 문화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⁸⁾ 때문에 문화산업론에 따르면 여가의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활동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토대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적 여가의 본질은 적나라한 이윤동기를 문화적 형태들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대량복제를 통해 생산된 여가상품의 소비일 뿐이다.”⁹⁾ 이러한 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총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제적 리바이어던’이며, 따라서 개개인의 여가활동은 생산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오직 상품의 소비일 뿐이고, 심지어는 여가 그 자체마저

8) 문화산업론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존 스토리(John Storey),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이소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9) Theodor W. Adorno, “Culture Industry Reconsidered,” *New German Critique* 6 (1975), pp. 12-19.

도 상품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의 진정한 여가는 여가 상품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시각은 문화산업론적 관점과는 매우 다르다.

둘째로, 문화산업론과는 대조적인 이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 여가사회론을 보자. 주지하듯이 여가사회론은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개개인의 가치분 소득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증대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켰기 때문에 여가사회가 도래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탈산업사회는 더 이상 노동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여가 중심의 사회이며, 개개인은 자본주의적 포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가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사회구성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노인계층의 특수성에서 된 현상일 뿐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시각은 여가사회론의 관점과도 다르다.

셋째로, 여가를 포함한 문화를 노동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또 하나의 지적 흐름을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포스트모던 여가론은 이성적으로 볼 때 실체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호나 모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지적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모던 쇼핑몰이나 여가 센터와 같은 현대적 여가상품은 노동이나 생산과는 무관한 ‘시물

10) 스탠리 파커 (Stanley Parker), 『현대사회와 여가』, 이연택·민창기 옮김 (서울: 일신사, 1995).

라시옹'일 뿐이다.¹¹⁾ 그러나 종교를 통한 자아발견적 여가 혹은 우주적 자기실현의 여가는 결코 시뮬라시옹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여가와 관련시킨 최초의 시각은 갓베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¹²⁾ 대표적인 여가학자로 알려진 갓베이는 여가와 종교가 내용상 친화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임을 밝힌 바 있다. 하여 이 글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갓베이의 관점을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따를 때 종교는, 만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유의미한 여가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유의미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론적 문제, 즉 종교와 웰빙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보자. 지금까지 종교와 웰빙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논의는 종교생활은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며, 두 번째는 개인의 종교생활이 친구나 가족 내의 불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오히려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교생활과 웰빙의 관계는 'U자' 형태, 즉 종교생활의 정도가 매우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경우는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간정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¹³⁾ 이러한 각각의 주장이 저마다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

11)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리스 로젝(Chris Rojek),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최석호·이진형 옮김 (서울: 일신과, 2002)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제프리 갓베이, 앞의 책.

13) 김영철,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취사선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계층에만 한정하여 생각할 경우 첫 번째 관점은 매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노인의 종교생활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¹⁴⁾ 첫째는 건강행위가설(Health Behaviors Hypothesis)로, 종교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접촉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종교와의 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 흡연, 약물, 도박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사회통합가설(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로 사회적 그물망이 대폭 축소되는 시기인 노년기에 종교활동은 노인들에게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종교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현실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종교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연결망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보다 나은 삶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인지적 일치가설(Cognitive Coherence Hypothesis)로 종교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위기(질병,

14) 김영철, 같은 글.

죽음, 이별 등)에 대해서 이행의 틀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정신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즉 종교는 이상과 교훈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실존적 의미를 제공해 주고, 삶이나 죽음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준다.

이들 중에서 세 번째 가설이 본 연구의 가설과 동일선 상에 있다. 이러한 가설은 특히 사회복지학계의 논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그동안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종교와 복지 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 논쟁은 크게 종교와 복지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종교와 복지를 결합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¹⁵⁾ 그러나 전자의 경우 종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실재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후자의 경우 객관적 사실로서의 사회복지 연구라는 학문적 이유 이외에도 클라이언트의 종교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 대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특정한 종교인으로부터만 구성된 특수목적 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일 것이다. 물론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존재하는 바, 영성(spirituality)과 사회복지 실천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가 그것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정립할 여지는 상당히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영성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복하게

15) 이러한 논쟁은 이미 오래 전에 일본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森永松信, 『불교사회복지학』, 이해숙 옮김 (서울: 불교시대사, 1992)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에드워드 캔다(Edward R. Canda) 외, 『종교복지실천론』, 박승희 외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늙어감 혹은 웰다잉을 추구하는 노인복지의 경우 삶의 내적 의미를 제공하는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은 한층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론적 차원에서 여가와 종교, 그리고 웰빙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글에서는 종교와 사회복지의 결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되, 종교를 그 자체의 목적적 활동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일종의 여가활동 혹은 진정한 여가의 수단으로 설정하는 이론적 입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 경우 사회복지의 보편적 사회복지 보다는 클라이언트를 특정한 종교인으로 한정된 특정종교사회복지 즉 특수사회복지로 그 실천 가능성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오히려 노인의 웰빙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실험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IV. 경험 연구의 사례

이 글의 가설을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가생활에서 종교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노인계층을 여러 하위집단으로 나눈 다음 계층별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가생활에서 종교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반된다. 왜냐하면 여가생활에서 종교생활의 비중이란 양적 시간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질적인(주관적인) 측면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깔끔한 방법은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계

층과 그렇지 않는 계층을 나누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계층과 그렇지 않는 계층 사이의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삶의 질을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전제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라면, 김영철의 경험적 자료는 우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김영철(2007)의 몇 가지 경험적 자료를 보자.¹⁷⁾ 먼저, 종교유무별 여가생활만족도를 보자. 아래 <표 1>은 종교유무별 여가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1> 종교유무별 여가활동 만족도 비교

구 분	평균		차이분석		
	종교 있음	종교 없음	평균 차	표준오차	t 값
여가활동 적절성	3.49	3.14	0.355	0.108	3.294***
현재의 여가만족	3.43	3.06	0.367	0.111	3.309***
취미오락 만족도	3.27	3.15	0.124	0.117	1.054
총 여가 만족도	3.39	3.12	0.267	0.104	2.574**

* p<.1 ** p<.05 *** p<.01

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유무 별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여가활동의 적절성과 현재의 여가만족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의 유무와 전체의 여가

17) 필자는 김영철의 박사논문(앞의 주 13)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1차 심사 때 아래에서 논의된 자료(1차 심사 논문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를 추가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그 결과 최종논문에서는 필자의 요구를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포함되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활동 만족과의 관계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 활동이 노인들의 여가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종교유무 별 정신적 만족도의 차이를 보자. 아래 <표 2>는 종교유무별 정신적 만족도의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2> 종교유무 별 정신적 만족도 차이

구 분	평균		차이분석		
	종교 있음	종교 없음	평균 차	표준오차	t 값
안정성	3.51	3.33	0.180	0.106	1.701*
삶의 가치	3.54	3.10	0.434	0.117	3.695***
행복감	3.34	3.01	0.329	0.124	2.655***
희 망	3.14	3.04	0.103	0.113	0.912
고독감	3.40	3.04	0.367	0.119	3.075***
정신적 만족도	3.39	3.11	0.282	0.096	2.924***

* $p < .1$ ** $p < .05$ *** $p < .01$

<표 2>를 보면,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종교가 없는 노인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이 느끼는 안정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되었으며, 현재의 삶이 가치 있는 정도, 현재 생활의 행복감, 고독함 또는 외로움을 덜 느끼는 정도 등의 항목에서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종교가 없는 노인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 그리고 종교유무와 정신적 만족도 또한 1%의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정신적 만족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도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도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⁸⁾ 아래 <표 3>은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 일반이 봉착해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큰 당면 문제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및 고독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부족’이 ‘일상 가정생활의 유지’나 ‘지위약화와 권위상실’보다도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 및 고독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에게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점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또 다시 입증되고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중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순위로는 휴식시설의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고, 2순위에서는 취미·교양 프로그램 제공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18) 해도, 「불교노인복지 서비스실태 및 그 지원책에 관한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논문집』 11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06). 2006년 1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6개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수요, 복지 서비스 및 종사자에 대한 평가, 복지 서비스 지원 시스템, 복지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인쇄하여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배포하였으며 총 299 부를 수거하였다. 이 중에서 부실한 설문 5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4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였다.

〈표 3〉 노인들의 당면 문제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외로움 및 고독감	38	14.2	25	10.5	63	12.5
지위약화와 권위상실	9	3.4	24	10.1	33	6.5
건강상의 문제	123	46.1	48	20.3	171	33.9
경제적인 어려움	43	16.1	49	20.7	92	18.3
일상 가정생활의 유지	13	4.9	27	11.4	40	7.9
여가/문화 프로그램 부족	14	5.2	35	14.8	49	9.7
문제 없음	27	10.1	29	12.2	56	11.1
계	267	100.0	237	100.0	504	100.0

그리고 복수응답을 순위와 관계없이 집계한 결과, 응답자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취미·교양 프로그램의 제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길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식시설의 마련은 여가활동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이며, 취미·교양 프로그램은 여가생활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¹⁹⁾

〈표 4〉 노인복지시설의 중점 서비스에 대한 수요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휴식시설	76	28.9	42	17.5	118	23.5
노인잔치	14	5.3	25	10.4	39	7.8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31	11.8	41	17.1	72	14.3
후원금/후원물품 지원	49	18.6	28	11.7	77	15.3
취미·교양 프로그램 제공	68	25.9	57	23.8	125	24.9
취업/부업 알선	25	9.5	47	19.6	72	14.3
계	263	100.0	240	100.0	503	100.0

19) 제도, 같은 글.

이렇게 볼 때, 노인의 여가시간을 종교생활로 충족시키는 것은 노인의 정신적 웰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복지계에서는 복지와 종교의 관계를 배타적(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는 사회복지 활동 및 시설관리에서 종교 활동의 배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인복지의 목표 달성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최선의 방법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특수목적을 추구하는 종교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것이며, 차선책은 특정한 종교계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이다.

VI. 결론

주지하듯이 한국사회는 급격히 초고령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제 노인의 정치세력화란 표현이나 노인혁명이란 말조차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노인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인식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미 여가사회라 할 정도로 여가생활이 한국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현대 한국사회는 물리적 합리성의 추구로 인한 인간소외(생산물 및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 뿐만 아니라 개인화로 인한 인간소외(유적 본성으로부터의 소외)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

정한 의미의 여가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에게서는 매우 절실하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인에게 여가생활은 삶의 의미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가 현실은 상업화된 레저나 스트레스성 여가로 채워져 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짜증스럽고 피곤하여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특히 생애주기에서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노인에게는 여가시간을 여하히 유의미하게 보내는가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적지 않다. 또한, 본 연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국불교계의 시대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불교는 이미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한국불교는 전체 인구의 1 천만 이상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층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와 질적 만족도, 즉 한국불교 노인불자들의 종교생활 만족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비록 본 연구가 종교생활을 여가생활의 수단으로 전제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노인들의 종교생활만족도를 종교별로 분석하는데 들 수는 없었지만, 실감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불교 노인불자들의 종교생활 만족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높다고 판단할 근거는 별로 없다. 최근 한국불교의 노인불자들이 노인복지활동이 활발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현상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현실이나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 및 여가사회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불교가 노인불자의 여가생활 및 복지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하다.

주제어

여가 (leisure) , 종교생활 (religious life) , 삶의 만족 (satisfaction of life) ,
여가와 종교의 인과관계 (causal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religious life) ,
종교생활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 (causal relation between religious
life and satisfaction of life)

Religion, Leisure, Satisfaction of Seniors

Lew Seung-Mu
Joongang Sang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seniors who make meaningful use of their spare time for religious activities feel happier than those who do not. For that purpose, I attempted, firstly, to make definitions of concepts such as leisure, religious, and happiness (or satisfaction of life).

Secondly, theoretical discussions are made o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religious life and between religious life and satisfaction of life.

Thirdly, I attempted to prove the hypothesis mentioned above by using the supporting evidences from the secondary data collected through the critical review of th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the causal relation between religious and satisfaction of life.

Based on this findings, I proposed a welfare policy that can support religious activities of the users of the welfare facilities founded by religious groups such as Joge Order, a Buddhist order.